

# 청동기시대의 수렵과 채집

김도헌  
울산문화재연구원

## <목 차>

I. 머리말	IV. 수렵·채집의 변화와 사회적 의미
II. 수렵	V. 맺음말
III. 채집	

## I. 머리말

청동기시대의 생계는 크게 농경과 수렵, 채집, 어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수렵과 채집, 어로 등은 구석기시대 이래로 존재했던 생계 형태인 반면, 농경은 신석기 시대에 도입된 이후 점차 비중이 높아져 청동기시대가 되면 가장 중요한 생계 형태가 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청동기시대를 농경사회(안재호 2000, 42-43쪽) 또는 농업경제(김장석 2002, 94쪽)로 명명하기도 한다.

이처럼 청동기시대 생계에서 농경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자가 공감하고 있고 실제로 청동기시대 생계 연구의 초점은 농경에 맞추어졌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 경향 때문에 청동기시대의 다른 생계 형태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물론 농경 이외의 다른 생계에 접근할 수 있는 고고자료가 제한적인 현실도 연구를 제약하는 하나의 요인임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청동기시대에 농경만으로 생계를 해결하였을 가능성은 희박<sup>1)</sup>하고 탄수화물

1) 청동기시대 생계에서 농경이 차지하는 구체적인 비중, 다시 말해 농경을 통해 공급된 식량이 어느 정도였는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논의 생산량 검토(이홍중 1997, 32-33쪽)가 이루어진 적이 있는데, 이에 따르면 청동기시대 논에서 생산한 쌀(7,000평에서 5,000kg의 쌀을 생산)로 전체 구성원의 절반 정도의 생계를 해결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이 산출치는 삼국시대 논의 생산량을 검토(곽종철 2001, 42-46쪽)하여 산출된 수치(논 300평당 34~72kg)와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그렇지만 어떤 산출치를 수용하여도 청동기시대에 농경만으로 생계를 해결할 수 없었음은 분명한 것 같다.

이외에 단백질과 비타민 등의 공급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청동기시대에도 수렵과 채집, 어로 등은 여전히 생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을 것이다(신숙정 2001, 19쪽). 따라서 청동기시대 생계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농경을 비롯한 여러 생계 형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여기서는 청동기시대 수렵과 채집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자 한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수렵과 채집에 접근할 수 있는 고고자료가 제한적이므로 여기서는 큰 틀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또한, 검토한 내용을 종합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수렵과 채집이 어떻게 변화하였고 그러한 변화가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sup>2)</sup>

## II. 수렵

수렵의 대상 및 도구와 방법은 다양한 것<sup>3)</sup>으로 알려졌지만, 고고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제한적이다. 특히 자료가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그러한데, 수렵과 관련된 고고자료로는 활(화살촉)과 창, 수렵함정, 동물유체 등에 한정된다.<sup>4)</sup> 이 가운데 활과 창, 수렵함정은 수렵방법, 동물유체는 수렵대상에 접근할 수 있는 자료이다.

먼저 수렵대상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한반도 중남부지방에서 출토된 청동기시대의 동물유체 사례는 적은 실정이다. 그런데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신석기시대 이후의 동물상은 현대의 그것과 큰 차이가 없는 것(김신규 1970, 105-106쪽)으로 알려졌으므로 다른 시대와 지역의 자료를 참고하여 수렵대상을 파악하여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런 전제를 바탕으로 유적에서 출토된 동물유체를 살펴보면(<표1> 참조), 선사시대에는 다양한 동물을 수렵하였지만 주된 대상은 사슴과의 여러 종(사슴, 말사슴, 노루, 사향노루, 복작노루, 우수리사슴 등)과 멧돼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신숙정 2001, 7-8쪽). 이러한 사실은 골각기의 소재로 사슴 뼈를 많이 사용하였다는 점

2) 이 글에서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한반도 중남부지방으로 설정하였고 시기구분은 기본적으로 송국리계 토기와 검단리식토기(안재호 2006, 8-9쪽) 또는 송국리문화(손준호 2006, 69-71쪽)를 후기, 그 이전을 전기로 설정하는 편년안을 수용하였음을 밝혀둔다.

3) 우리나라 채래의 사냥구와 사냥법에 대해서는 김광언(2006, 5-89쪽)에 의해 상세히 정리되었는데, 여기에 다양한 수렵도구와 수렵방법이 소개되었다.

4) 이 밖에 그물수렵과 관련된 자료가 있다. 황해북도 봉산군 시흥동유적 3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그물은 그물추가 없기 때문에 수렵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한다(박영초 1988, 99쪽). 실제로 선사시대에 그물수렵이 존재했을 가능성은 높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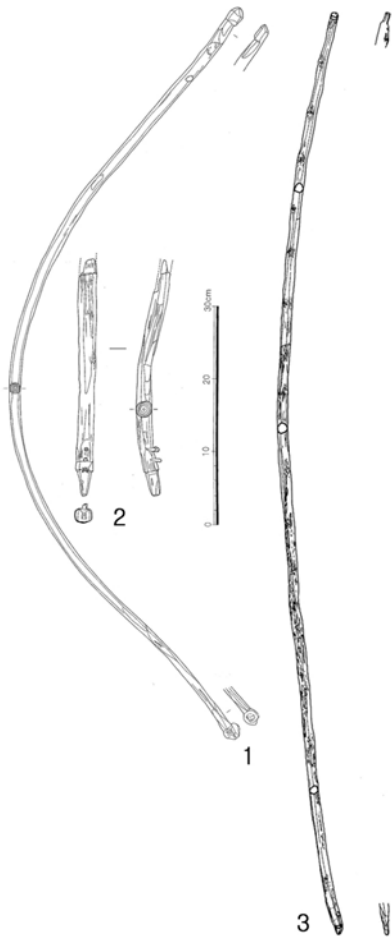
(하인수 2006, 122-124쪽; 유병일 2007, 77-78쪽)과 복골 제작에 멧돼지와 사슴의 뼈를 주로 이용하였다는 점(은화수 1999, 7쪽)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뒷받침된다.<sup>5)</sup> 따라서 청동기시대 수렵의 주된 대상은 사슴과 멧돼지였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sup>6)</sup>

<표1> 청동기시대 유적 출토 동물유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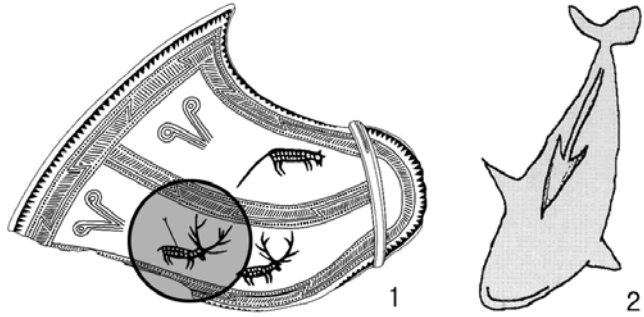
집승	유적	고남리	서포항	초도	오동	범의구석	미송리	입석리	승리산
멧토끼( <i>Lepus coreanus</i> L.)			○		○	○	○	○	○
몽골쥐( <i>Apodemus agrarius</i> )					○				
집쥐( <i>Rattus norvegicus</i> B.)		○							○
비단털쥐( <i>Cricetulus triton</i> W.)					○				
송냥이( <i>Canis lupus</i> L.)			○				○		
여우( <i>Vulpes vulpes</i> L.)		○	○	○	○				○
너구리( <i>Nyctereutes procyonoides</i> )		○	○	○	○		○	○	○
곰( <i>Ursus thibetanus</i> C.)			○	○	○	○			
큰곰( <i>Ursus arctos lasiotus</i> )			○	○		○			
검은물( <i>Martes zibellina</i> )				○		○			
산달( <i>Martes flavigula</i> K.)			○			○			○
수달( <i>Lutra lutra</i> L.)			○		○	○		○	○
족제비( <i>Mustela sibiricus</i> P.)			○						
오소리( <i>Meles melanogenis</i> )		○	○		○	○		○	
시라소니( <i>Felis lynx</i> L.)			○				○		○
삼( <i>Felis euphilla</i> E.)			○						○
범( <i>Felis tigris</i> cor.)				○		○	○		○
표범( <i>Felis pardus</i> L.)			○				○		
물개( <i>Callorhinus ursinus</i> L.)			○						
바다말( <i>Eumetopias jubatus</i> L.)			○						
수염고래( <i>Balena cf. australis</i> )			○						
바다사자( <i>Zalopus californicu</i> L.)		○	○						
넙예( <i>Phoca vitulina</i> L.)			○						
멧돼지( <i>Sus scrofa conti.</i> )		○	○	○	○	○	○	○	
사향노루( <i>Moschus moschiferus</i> )		○		○	○	○			○
노루( <i>Capreolus capreolus</i> )			○	○	○	○	○	○	○
복작노루( <i>Hydropotes inermis</i> )							○	○	○
사슴( <i>Cervus nippon.</i> )		○	○	○		○	○	○	
말사슴( <i>Cervus elaphus</i> )			○	○	○	○	○		○
우수리사슴( <i>Cervus nippon hortulorum</i> )		○							
산양( <i>Nemorphedus rad.</i> )			○	○	○	○			
뱀		○							
개구리		○							
오리과		○							
꿩		○							
산비둘기		○							
솔개		○							
까마귀과		○							
아비과		○							

5) 포항 인덕산유적 청동기시대 10호 주거지에서 8개체의 獸頭骨이 출토되었는데, 이러한 수두골의 집적 현상은 수렵이나 농경의 풍요를 바라는 뜻에서 이루어진 의례행위로 추정한다(배덕환 2007, 88-89쪽). 향후 연구성고가 축적되어 이러한 사례가 수렵의 풍요와 관련된 것이 분명해진다면, 인덕산유적의 사례는 청동기시대에 멧돼지를 대상으로 한 수렵이 활발하였음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6) 신석기시대와 삼국시대의 유적에서 다수의 조류가 출토되었기 때문에 조류도 수렵의 대상이었을 것으로 파악한다(신숙정 2001, 7쪽; 곽종철 2003, 449-457쪽, 이준정 2005, 152쪽).



<도면1> 활 각종(1~3) - 1:2:광주 신창동유적, 3:광주 동림동 유적 <축척-1/10 >



<도면2> 경주 출토 견갑형동기(1)와 반구대암각화 가운데 고래 그림(2) <축척·부동>

다음은 수렵형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먼저 석촉(골촉)과 활을 통해 활수렵을 상정할 수 있다(<도면1> 참조). 활수렵은 길목에서 짐승을 기다리다가 활을 쏘아 짐승을 포획하는 방법으로, 상대적으로 원거리에서 이루어진다. 너른 들판에서 사슴과 노루 등을 포획하는 것은 유리(김광언 2006, 20쪽)하지만, 살생력의 한계<sup>7)</sup> 때문에 털과 가죽이 튼튼하면서 상처에 대한 저항력이 큰 멧돼지의 수렵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곽종철 2003, 437쪽)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활수렵은 상처에 약한 사슴과 노루 등을 비롯하여 소형동물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다(곽종철 2003, 43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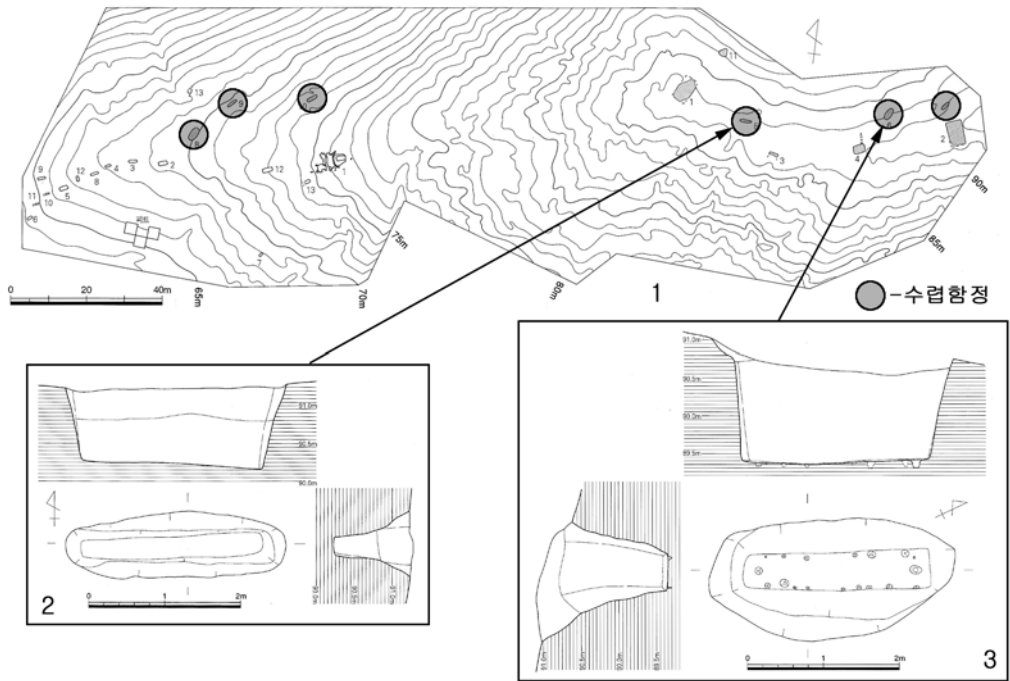
그리고 석창<sup>8)</sup>(골창)을 통해 창수렵을 상정할 수 있다.<sup>9)</sup> 이 외에 창수렵과 관련된 자료로 경주 출

토 견갑형동기에 묘사된 창을 맞은 사슴 그림과 반구대암각화에 묘사된 창을 맞은 고래 그림이 있다(<도면2> 참조). 창수렵은 수렵대상 가까이 접근해야 하는 위험성이 있지만, 급소를 찔러 치명상을 입히기에 적합한 방법이다(김광언 2006, 15쪽). 따라서 창수렵은 멧돼지처럼 활로 수렵하기 어려운 동물을 비롯하여 비교적 크기가 큰 중대형동물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7) 일본의 愛知縣 朝日遺蹟에서 석촉이 박혀 있는 사슴 경추골이 확인되었는데, 석촉 주변의 뼈가 증식된 것으로 보여 치명상을 입히지는 못했던 것으로 이해한다(곽종철 2003, 437쪽).

8) 연구자에 따라 동일한 유물을 석창(김현식 2003, 148-151쪽)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대형 석촉(손준호 2005, 136쪽)으로 파악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석창의 분류에 대해서는 향후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석창과 석검의 구분도 다소 모호한 경우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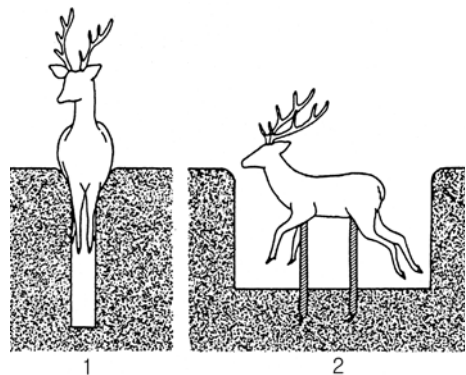
9) 실물자료는 없지만, 나무로 만든 목창(김광언 2006, 16쪽)을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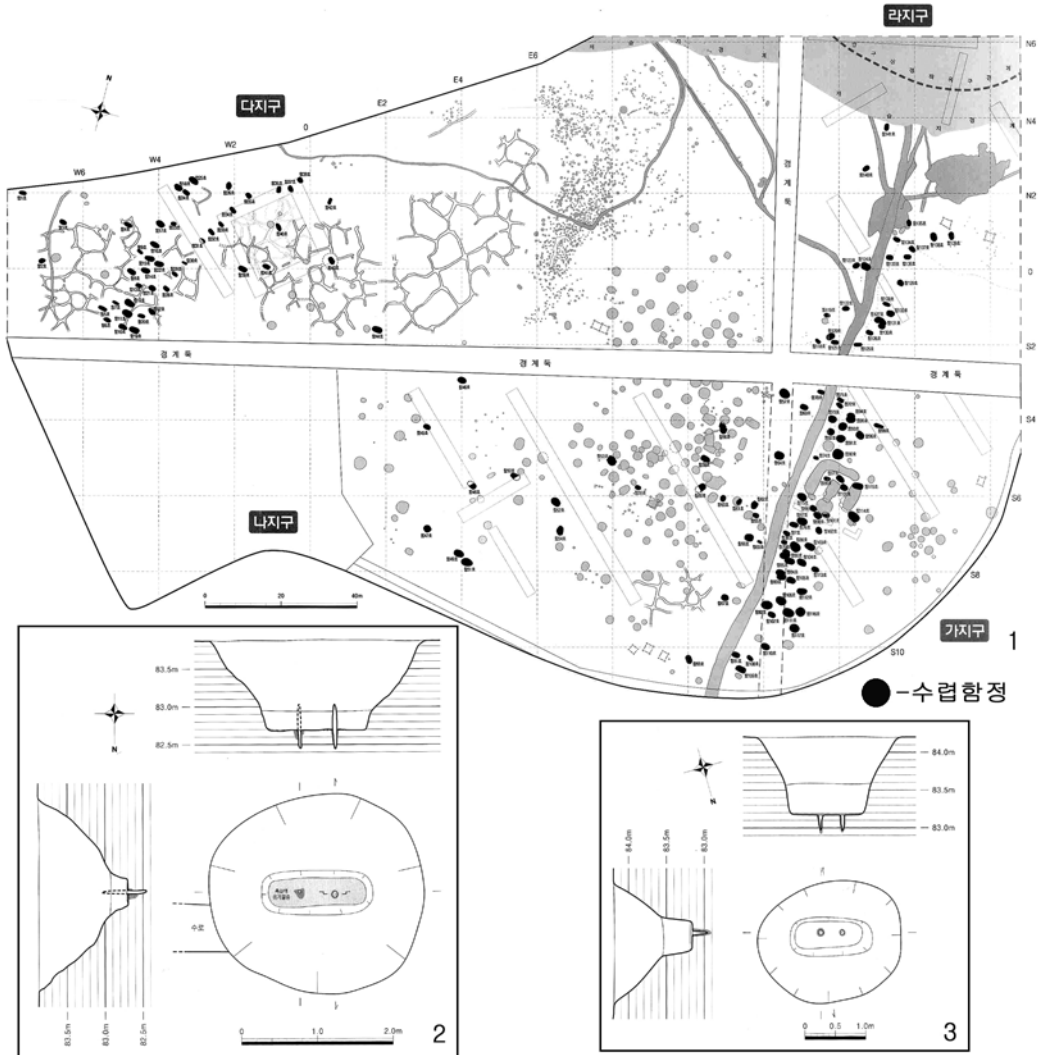
<도면3> 울산 옥동유적 유구분포도(1)와 5호(2)·6호(3) 수렵함정 <축척-1:1/2,000, 2·3-1/100>

마지막으로 수렵함정을 통해 함정수렵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수렵함정은 최근 조사사례가 증가하였는데, 현재까지 보고된 자료로 보면 형태와 입지를 기준으로 크게 장타원형과 타원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김도현 2005, 78-83쪽).

먼저 장타원형은 울산 옥동유적에서 조사된 사례가 대표적이다(<도면3> 참조). 장타원형은 수혈의 장단비가 3:1 전후로 폭에 비해 길이가 긴 형태이다. 수혈의 단면은 'Y' 또는 'V'자상인데, 수혈의 벽면은 대부분 후대에 붕괴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김도현·권지영 2007, 10쪽, 24-25쪽)에서 원래 단면은 아래쪽의 폭이 보다 좁은 'Y'자상이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내부에는 아무런 시설이 없거나 바닥 가장자리에 얇은 구멍이 다수 있는 형태가 있다. 장타원형은 함정에 빠진 짐승이 도약할 수 없게 되어 갇히게 되는 구조이다(<도면4>의 1 참조). 장타원형은 주거지역에서 떨어진 구릉에 설치되는데, 동시에 설치한 함정의 수는 타원형에 비해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도면4>에조시카용 함정 상징도



<도면5> 춘천 천전리유적 B지역 유구분포도(1)와 90호(2)·67호(3) 수렵함정 <축척-1:1/2,000, 2·3-1/100>

타원형은 춘천 천전리유적에서 조사된 것이 대표적이다(<도면5> 참조). 타원형은 장타원형에 비해 크기가 다소 작으면서 수혈의 장단비가 2:1 이하가 일반적이다. 수혈의 단면 형태는 장타원형과 큰 차이가 없지만, 바닥 중앙에 2개 전후의 창을 설치한 형태가 일반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타원형은 함정에 빠진 짐승이 바닥에 설치된 창에 의해 상처를 입거나 살생되어 간히게 되는 구조이다(<도면4>의 2 참조). 타원형은 주거지역 주변의 평지 또는 구릉 말단부에 설치된 경우가 많으면서 동시에 설치한 함정의 수도 장타원형에 비해 많은 것으로 추정한다.

수렵함정 장타원형과 타원형은 입지와 구조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수렵의 대상이 달랐을 가능성이 있다. 멧돼지가 저지대인 취락 주변의 산지에 서식하는 반면, 사

슴은 주로 고지대에 서식한다는 점(이홍중 1997, 11쪽)과 수렵함정의 구조와 입지를 고려하면 장타원형은 사슴, 타원형은 멧돼지의 수렵을 목적으로 설치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수렵함정은 자료가 축적되기 시작한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보고된 자료를 통해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 다만 현재까지의 자료로 보면 우리나라의 선사시대 함정수렵은 함정을 설치한 다음 짐승을 몰아서 잡는 이른바 몰이사냥의 형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김도현 2005, 86쪽; 김권중 2008, 102쪽). 이것은 몰이사냥이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하는 일본 죠평시대(繩文時代)의 오토시아나(陥し穴)에 비해 설치된 함정의 밀도가 낮으면서 입지가 몰이사냥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선사고대의 수렵은 목적에 따라 생계수렵과 구제수렵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청동기시대 수렵함정 가운데 구제수렵을 목적으로 설치한 것도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김도현·권지영 2007, 26-28쪽). 청동기시대에 구제수렵용 수렵함정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수렵함정을 생계수렵용으로 설치한 것으로 파악하여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겠다.

### Ⅲ. 채집

채집의 대상은 대부분 식물성 식료로 알려졌는데, 식생은 기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먼저 청동기시대의 기후를 간단히 살펴보겠다. 우리나라의 식생환경은 5,000BP 무렵에 완성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기후 변화에 따라 식생환경이 다소 변화하였다고 한다(장호수 1997, 319쪽). 그리고 우리나라 후빙기의 기후변화는 몇 기로 구분(장호수 1997, 325-329쪽)되는데, 청동기시대가 되면 신석기시대에 비해 다소

기온이 하강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표2> 참조). 그런데 이러한 기후 변화는 매우 따뜻했던 신석기시대의 ‘기후 극상기’와 비교한 것이므로 청동기시대의 기후는 오늘날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한다(신숙정

<표2> 우리나라 후빙기의 기후변화

시 기	기 후
10,000~8,000BP	기후 안정기로 기온 상승
8,000~5,000BP	기온 상승으로 기후가 현재와 유사
5,000~3,800BP	기온이 하강하면서 추워짐
3,800~2,000BP	기온이 점점 낮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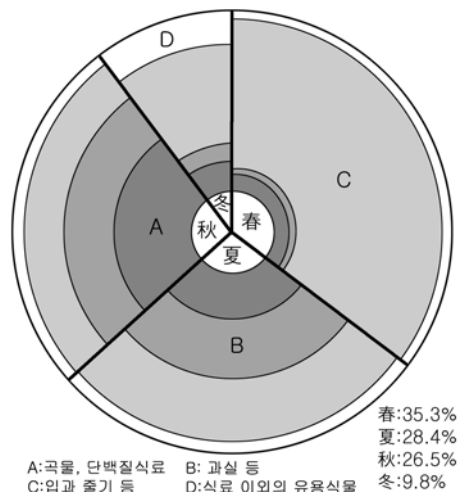
<표3>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 야생식용식물의 종류

1.種實類 (穀類代用)	1)강아지풀, 피 등의 벼과 종자, 삼씨, 띠풀 종자(菰米) 2)조릿대·산대·섬대 등 笹類의 열매
2.堅果類 (澱粉)	1)떡갈·상수리·줄참·신갈·굴참·갈참나무 등 낙엽교목참나무과 도토리 2)모밀жат밤나무·구실жат밤나무·개가시나무·붉가시나무 등 상록활엽참나무과 도토리 3)밤·호도(가래)·개암·돌배나무·대추나무의 열매
3.根莖類 (澱粉)	1)백합과 비늘줄기(鱗莖) : 얼레지·큰원추리·참나리·하늘말나리·등글레·죽대 2)도라지와 뿌리 : 모시대, 층층잔대, 더덕, 만삼, 도라지 3)球根, 塊根 : 칩, 하늘수박, 하늘타리, 울방개, 천남성, 참마, 단풍잎마 4)기타 : 고사리·고비·매의 뿌리, 두릅나무의 根皮
4.樹皮(澱粉)	소나무·산초나무·뽕나무·참느릅나무 등의 樹皮(心皮)
5.야생콩류	살갈퀴, 돌동부, 돌콩, 새콩, 등갈퀴나물 등의 종자 또는 어린 꼬투리

2001, 3쪽).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세부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신석기시대 이후의 기본적인 식생은 오늘날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안승모 1993, 181-182쪽)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신석기시대 이래의 식생에 큰 변화가 없었다고 한다면, 다른 시대의 자료를 통해 청동기시대 채집의 대상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 야생식용(또는 구황식물) 자료와 일본의 아이누족 및 죠평시대의 식물성식료를 종합하여 신석기시대에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 야생식용식물의 종류를 제시한 연구 성과(안승모 2002, 92-94쪽)가 있는데, 여기(<표3> 참조)에 제시된 신석기시대의 야생식용식물은 청동기시대에도 채집의 대상이었을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표3>을 통해 적어도 청동기시대에 채집의 대상이 다양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일본 야요이시대(彌生時代)의 연구 성과를 통해 계절에 따라 대상과 비중의 차이가 있지만 연중 야생식용식물의 채집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도면6> 참조).

청동기시대에 다양한 야생식용식물을 채집 하였던 것으로 파악됨에도 불구하고 채집과 관련된 고고자료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물론 球根類의 채집에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하는 (打製)掘地具와 堅果類의 가공에 이용되었다고 생각하는 갈돌(石棒)과 갈판(碾石)이 있다(김건수 2000, 72-73쪽). 그러나 굴지구의 주된 용도를 채집용으로 설정하거나, 갈돌·갈판이 견과류의 가공에만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sup>10)</sup> 게다가 신석기시대 이후



<도면6> 야요이인의 식물식료 수확·채집 달력

청동기시대가 되면 타제굴지구는 거의 사라지고 갈돌·갈판의 출토빈도도 감소한다(지건길·안승모 1983, 59-62쪽, 72-73쪽).

한편 채집과 관련된 간접자료로 저장시설을 들 수 있다. 채집한 식물성식료를 바로 소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를 저장하는 용기나 시설이 필요하였을 것이다. 또한 저장하는 식물성식료의 양과 종류에 따라 저장시설도 변화하였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장시설의 양상을 통해 채집의 양상을 유추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다. 문제는 저장시설 가운데 채집한 야생식용식물을 저장하였던 곳을 어떻게 구분하는가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는데, 실제로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저장시설로 알려진 이른바 송국리문화 저장공을 견과류와 근경류(채집한 식물성식료)의 월동용 단기보관 장소로 파악하는 견해(손준호 2004, 10쪽)와 함께 곡물 보관에 이용되었던 것으로 파악하는 견해(김장석 2008, 14쪽)도 제시되었다. 따라서 저장시설을 통해 채집에 접근하는 것도 제약이 있는 실정이다.<sup>11)</sup>

#### IV. 수렵·채집의 변화와 사회적 의미

여기서는 신석기시대에서 청동기시대로 전환되면서 수렵·채집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본 다음, 그 사회적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기로 한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채집과 관련된 자료가 적기 때문에 수렵을 중심으로 검토하기로 하겠다.

고고자료를 통해 상정한 청동기시대 수렵의 종류로는 활수렵과 창수렵, 함정수렵이 있다. 이 가운데 활(창)수렵은 구석기시대 이래로 존재한 반면, 함정수렵은 청동기시대에 확산된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이웃한 일본의 사례로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신석기시대의 수렵함정이 조사될 여지는 충분하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자료로 본다면 수렵함정이 확산된 시기는 청동기시대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청동기시대 수렵에서 발생한 변화는 함정수렵의 비중이 높아졌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sup>12)</sup> 그렇다고 한다면, 함정수렵과 활(창)수렵의 비교를 통해 청동기시대에 수렵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10) 예를 들면, 宮本一夫(2005, 53-59쪽)씨는 타제굴지구를 園耕道具, 갈돌과 갈판을 화북형 농경석기로 파악한다.

11) 이 밖에 선사시대 토기가 침저에서 평저로 변화하는 요인을 계분기술의 발달에서 구하는 견해(渡辺誠 1996, 35-37쪽)도 있다.

12) 청동기시대 활(창)수렵도 신석기시대와 달랐을 가능성은 있다. 즉, 수렵의 대상은 큰 차이가 없었겠지만, 수렵에 참가하는 인원과 횃수, 수렵영역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변화가 있었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현재의 연구성과와 고고자료를 통해 이러한 변화를 간취하기 어려우므로 검토의 대상에서 제외하겠다.

를 엿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양자를 비교하는 것도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 다시 말해 수렵에 참가하는 인원과 시간, 포획량 등 여러 가지 변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양자를 구체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구체적인 수치를 산출할 수 없으므로 여기서는 대략적으로 큰 틀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추기로 하겠다.

수렵은 크게 ‘준비’와 ‘포획’의 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수렵의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다. 즉, 활(창)수렵에서 준비는 활(창)과 화살의 제작을 말하며 포획은 수렵영역으로 이동하여 짐승을 쫓은 다음 활(창)로 짐승을 살생하는 과정이다. 반면 함정수렵에서 준비는 수렵영역으로 이동하여 함정과 유도책을 설치 또는 보수하는 작업을 말하며 포획은 주기를 정해 함정을 확인하고 함정에 갇힌 짐승을 살생(또는 생포)하는 과정이다.

수렵방법에 따라 개개 과정에서 투입되는 노동력을 산출하는 것은 어렵지만, 수렵에 투입되는 전체 노동력 가운데 개별 과정에 분배되는 노동력의 비율을 비교하는 것은 가능하다. 물론 구체적인 비율은 알 수 없지만, 활(창)수렵은 수렵 준비보다 짐승을 포획하는데 소요되는 노동력이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함정수렵은 함정과 유도책을 설치하거나 보수하는데 사용하는 노동력이 함정에 갇힌 짐승을 포획하는데 소요되는 노동력보다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활(창)수렵과 함정수렵에서 확인되는 차이점은 수렵의 과정 가운데 준비와 포획에 분배되는 노동력의 비율이 다르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점은, 함정수렵이 활(창)수렵에 비해 손실되는 노동력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졌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sup>13)</sup> 수렵은 언제나 실패할 확률, 즉 짐승을 포획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안승모 1998, 50쪽). 이러한 수렵의 실패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대 수렵채집민의 사례가 참고가 된다(로저 키징 1985, 167-168쪽). 현대 수렵채집민, 예를 들면 부쉬맨(Bushman)의 경우, 생존에 필수적인 주식은 채집한 나무열매 등의 식용식물로 알려졌다. 그리고 수렵채집민에게 있어서 수렵으로 잡은 동물은 영양섭취에 지대한 공헌을 하지만, 한정된 무기에 의존해야 하는 인간은 수렵에서 심한 압박을 받았으며 이 때문에 수렵은 불확실하면서 위험한 일로 알려졌다. 이처럼 현대 수렵채집민이 채집으로 획득한 식용식물을 주된 식료로 하였다는 사실과 수렵이 불확실하면서 위험한 일로 인식되었다는 점은 현대 수렵채집민이 수렵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던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상황은 선사시대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13) 노동시간의 측면에서 활(창)수렵보다 함정수렵이 나은지는 알 수 없다. 이것은 동일한 포획량을 얻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알 수 없기 때문인데, 이런 이유로 함정수렵과 활(창)수렵의 생산성을 비교할 수도 없다.

그런데 수렵에서 실패할 경우, 수렵에 투입된 노동력은 모두 손실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활(창)수렵처럼 수렵 과정 중 포획에 많은 노동력이 배분되는 수렵 형태에서는 짐승을 포획하지 못할 경우 손실되는 노동력의 양은 더욱 많아진다. 반면 함정수렵은 포획 과정에 소요되는 노동력의 비율이 낮기 때문에 짐승을 포획하지 못하여도 손실되는 노동력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다. 아울러 수렵의 대상에 따라 활(창)수렵에 참가하는 사람 가운데 부상을 입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 함정수렵은 이러한 부상의 위험을 예방하는 장점도 있다. 이 역시 손실되는 노동력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함정수렵은, 수렵이 가지는 포획의 불확실성(투기성) 때문에 발생하는 노동력 손실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함정수렵은 수렵시점의 선택이라는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데, 여기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함정수렵과 활(창)수렵은 수렵의 시점을 결정하는 기준에서 차이를 보인다. 즉, 활(창)수렵은 짐승의 습성을 파악한 다음, 이를 고려하여 수렵을 하여야만 포획의 확률을 높일 수 있다. 그러므로 활(창)수렵의 시점은 짐승의 습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반면 함정수렵은 주기를 정해 수렵함정을 확인하면 되고 수렵함정을 확인하는 주기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수렵함정과 유도책 등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시간도 어떤 정해진 조건의 구애를 받는다고보다는 여유가 있는 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함정수렵은 활(창)수렵에 비해 수렵에 분배하는 노동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함정수렵은 수렵이 가지는 포획(수확)의 불확실성 때문에 발생하는 노동력 손실을 감소시키는 효과와 수렵에 분배하는 노동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신석기시대에서 청동기시대로 전환된 이후 이러한 방향으로 수렵이 변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수렵에서 이러한 변화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수렵에서 확인되는 변화의 방향으로 본다면 다른 생계 형태에 분배하는 노동력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즉, 다른 생계 형태에 투입되는 노동력이 많아지면서 수렵에 분배할 수 있는 노동력이 감소되었고 이러한 상황 때문에 노동력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수렵방법이 변화하였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청동기시대에 많은 노동력을 투입하게 된 생계 형태는 역시 농경일 것이다. 특히 농경사회는 수렵채집사회에 비해 생계에 투입하는 노동시간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한상복 외 1992, 382-389쪽; 안승모 1998, 50쪽)는 점에서 농경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노동시간의 증가와 함께 농경에 투입되는 노동력도 증가하였을 것이다. 이처럼 농경이라는 생계에 많은 노동력이 배분되면서 수렵은 노동력을 절감하면서 여유가 있는 시간을 선택하여 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화하였던 것으로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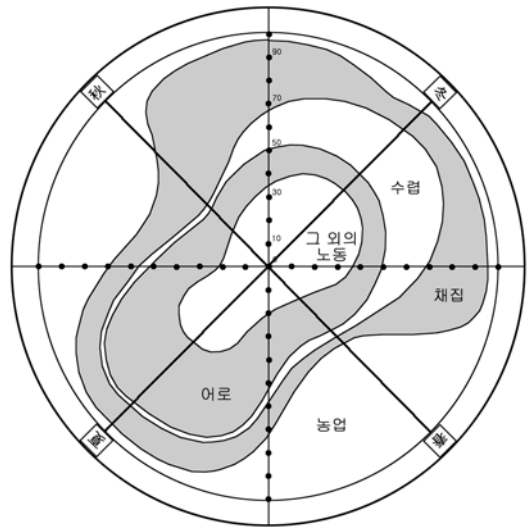
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살펴 보기로 하겠다.

계절에 따라 개개 생계형태에 분배하는 노동력의 비율은 달라진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본 야요이시대 연구성과를 참조할 수 있다(甲元眞之 2004, 166-169 쪽). <도면7>에 제시된 것처럼 계절에 따라 생계 형태에 분배하는 노동력의 비율은 차이가 있는데, 이에 따르면 겨울에는 수렵에 많은 노동력을 배분할 수 있다. 그러나 농경을 비롯한 다른 생계에 많은 노동력을 투입하는 기간인 봄부터 가을까지는 수렵에 분배할 수 있는 노동력은 제한적이다. 그러나 이

기간에도 생계(영양의 균형)를 위해 동물성식료는 필요하였을 것이다. 물론 청동기시대에 동물성식료의 저장기술이 발달하였다면 겨울 동안 확보한 동물성식료를 봄부터 가을까지 소비할 수 있었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다.<sup>14)</sup> 따라서 농경에 많은 노동력을 배분하면서 수렵에 투입할 수 있는 노동력이 제한적인 시기에 필요한 동물성식료를 공급받기 위해 함정수렵을 선택하였을 개연성이 있을 것이다.

한편 수렵에서 확인되는 변화로 본다면 채집도 청동기시대에 일정한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이러한 채집의 변화가 수렵과 동일한 원인 때문이라면 역시 노동력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채집에서 노동력을 절감하는 방법이 뚜렷하게 없다는 점에서 協業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노동력을 절감하는 형태였지 않을까 한다.

즉, 농경에 수반되는 경작지와 관개시설의 조성에 협업이 필요하다는 점(김승옥 2006, 30-31쪽)에서 청동기시대에 농경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협업체계가 구축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협업이 채집에도 적용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켰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협업을 통해 많은 사람이 짧은 시간에 식물성식료를 채집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채집에 소요되는 노동력을 절감시켰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른바 송국리문화 저장공(손준호 2004)이다.



\*숫자는 노동력의 총합을 100%로 할 경우 개개 생업 노동력의 비율(추정)

<도면7> 야요이인의 생업 달력

14) 사육을 통해 동물성식료를 공급받는 것도 가능한데, 청동기시대에 동물을 사육(안덕임 1993, 191쪽) 하였을 가능성은 있지만 구체적인 양상은 아직까지 불분명하다. 오히려 청동기시대에 수렵함정이 확산되는 양상을 통해 사육의 비중이 높지 않았음을 추정하는 것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물론 이것은 수렵함정이 모두 생계수렵용이라는 전제가 성립될 때 가능한 것이다.

여기서 잠깐 저장시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는데, 선사시대 저장시설은 신석기시대부터 확인된다. 신석기시대에는 주거지 내부에 구덩이를 파서 저장시설로 사용하거나 토기를 이용하였으며 주거지 외부에 설치한 저장시설도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김희찬 1995, 101-106쪽). 청동기시대 전기에도 주거지 내부에 소규모의 저장시설을 설치하는 형태가 일반적이었지만, 점차 외부에 별도의 저장시설을 축조하게 되면서 후기에는 주거지 또는 취락에서 떨어진 별도의 공간에 저장시설을 축조하였다(이창호 2004, 34-35쪽). 이처럼 선사시대 저장시설에서 확인되는 가장 뚜렷한 변화는 청동기시대 후기에 확산되는 이른바 송국리문화 저장공(손준호 2004)의 출현이다.

송국리문화 저장공에 저장한 대상물이 무엇인지는 이견(손준호 2004, 10쪽; 김장석 2008, 14쪽)이 있지만, 이 저장공의 존재를 통해 저장의 대상물이 이전에 비해 많아졌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청동기시대 후기의 주거면적당 저장량은 청동기시대 전기에 비해 8~20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장석 2008, 18쪽). 이처럼 확대된 저장공간 가운데에는 채집한 식물성식료의 저장공간도 포함되었을 수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채집·보관되는 식물성식료의 양이 이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청동기시대에 저장되는 식물성식료의 양적 증가는 생계에서 식물성식료의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협업을 통해 단기간에 많은 양을 채집하였기 때문에 특정 시기에 보관하였던 저장량이 많아졌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상의 채집과 관련된 내용은 구체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성과와 자료가 축적된 이후 검토가 필요하다.

## V. 맺음말

이상에서 청동기시대 수렵과 채집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한적인 자료를 가지고 무리한 해석을 시도하였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비약과 억측이 있음을 자인한다. 또한 필자의 지식과 능력이 부족하여 제한적인 검토밖에 진행할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수렵과 채집의 변화시점을 간단히 설명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청동기시대에 수렵이 변화하였던 것으로 생각하는데, 현재로서는 변화의 획기를 청동기시대 후기로 추정한다. 즉, 현재까지 보고된 수렵함정은 청동기시대 후기 이후로 편년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함정수렵이 확산된 시점 역시 동일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추정이 타당하다면, 농경에 투입되는 노동력이 많아진 시점은 수도작이 확산된 이후로 볼 수 있다.

### <표와 도면 출처>

- <표1> - 신숙정 2001, 8쪽 표1을 전재
- <표2> - 장호수 1997, 325-329쪽의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
- <표3> - 안승모 2002, 93쪽 <표5>를 전재
- <도면1> - 1:2:국립광주박물관 1997, 3:호남문화재연구원 2007
- <도면2> - 1:국립중앙박물관·국립광주박물관 1992에서 수정, 2:북천박물관 2005
- <도면3> - 1~3:울산문화재연구원 2005에서 수정
- <도면4> - 佐藤宏之 1998에서 수정
- <도면5> - 1~3:강원문화재연구소 2008에서 수정
- <도면6> - 寺澤 薫 1987에서 수정
- <도면7> - 甲元眞之 2004에서 수정

### <참고문헌>

- 江原文化財研究所, 2008, 『泉田里』學術叢書 80冊.
- 곽종철, 2001, 「우리 나라의 선사~고대 논 밭 유구」, 『한국 농경문화의 형성』 제 25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 \_\_\_\_\_, 2003, 「가야의 생업」, 『가야 고고학의 새로운 조명』 부산대학교 한국민족 문화연구소 편, 해안.
- 國立中央博物館·國立光州博物館, 1992, 『韓國의 靑銅器文化』, 汎友社.
- 宮本一夫, 2005, 「園耕과 紮蒙(繩文)農耕」, 『韓國新石器研究』第10號.
- 金建洙, 2000, 「원시 및 고대인의 식생활」, 『國史館論叢』第91輯, 國史編纂委員會.
- 김권중, 2008, 「IV. 종합고찰」, 『泉田里』江原文化財研究所 學術叢書 80冊.
- 金壯錫, 2002, 「남한지역 신석기-청동기시대 전환: 자료의 재검토를 통한 가설의 제시」, 『韓國考古學報』48, 韓國考古學會.
- 김광언, 2006, 「한국 재래 사냥구와 사냥법」, 『생활문화연구』제18호, 국립민속박물관.
- 김도현, 2005, 「수렵합정과 사냥법에 대한 검토」, 『湖南考古學報』22.
- 김도현·권지영, 2007, 「선사시대 수렵합정의 조사연구법 시론」, 『야외고고학』제2호,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 김승옥, 2006, 「청동기시대 주거지의 편년과 사회변천」, 『한국고고학보』60.
- 김신규, 1970, 「우리 나라 원시유적에서 나온 포유동물상」, 『고고민속론문집』2,

사회과학출판사.

- 김장석, 2008, 「송국리단계 저장시설의 사회경제적 의미」, 『한국고고학보』 67.
- 김현식, 2003, 「IV-1. 黃土田遺蹟 無文土器時代 聚落에 대하여」, 『蔚山 新峴洞 黃土田遺蹟』, 蔚山文化財研究院 學術調查報告 第7冊.
- 김희찬, 1995, 「신석기시대 식량획득과 저장성」, 『亞細亞古文化』 石溪 黃龍渾教授 定年紀念論叢.
- 로저 키징(전경수 역), 1985, 『現代文化人類學』, 玄音社.
- 박영초, 1988, 『조선인민경제사(원시-고대편)』, 사회과학출판사.
- 배덕환, 2007, 「靑銅器時代 住居址 出土 獸頭骨 研究 -포항 인덕산유적 10호 주거지 출토사례를 중심으로」, 『東亞文化 -稼軒 李鉉教授 古稀紀念論叢』 特輯號.
- 북천박물관, 2005, 『선사·고대의 요리』 특별전도록.
- 孫峻鎬, 2004, 「錦江流域 松菊里文化의 群集 貯藏孔 研究」 『科技考古研究』 10號, 아주대학교박물관.
- \_\_\_\_\_, 2005, 「“청동기시대 영남지역의 환경과 생업”에 대한 토론」 『영남의 청동기시대 문화』 第14回 嶺南考古學會 學術發表會, 嶺南考古學會.
- \_\_\_\_\_, 2006, 「韓半島 靑銅器時代 磨製石器 研究」, 高麗大學校 文化財學協同課程 考古學專攻 博士學位論文.
- 신숙정, 2001, 「우리나라 청동기시대의 생업경제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시론」, 『韓國上古史學報』 第35號, 韓國上古史學會.
- 안덕임, 1993, 「한국선사시대 식생활 -동물성식료」, 『東아시아 食生活學會誌』 3(2).
- 安承模, 1993, 「韓國先史時代의 食生活 -植物性食料」, 『東아시아 食生活學會誌』 3(2).
- \_\_\_\_\_, 1998, 「先史農耕의 得과 失」, 『東아시아 先史時代의 農耕과 生業』, 學研文化社.
- \_\_\_\_\_, 2002, 「新石器時代의 植物性食料(1) -野生食用植物 資料」, 『韓國 新石器時代의 環境과 生業』, 동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編.
- 安在皓, 2000, 「韓國 農耕社會의 成立」, 『韓國考古學報』 43, 韓國考古學會.
- \_\_\_\_\_, 2006, 「靑銅器時代 聚落研究」, 釜山大學校 考古學科 博士學位論文.
- 蔚山文化財研究院, 2005, 『蔚山玉洞遺蹟』, 學術調查報告 第16冊.
- 유병일, 2007, 「三韓·三國時代의 骨角器 -嶺南地域 資料를 中心으로」, 『선사·고대의 骨角器』, 제11회 북천박물관 학술세미나.

- 殷和秀, 1997, 「韓國 出土 卜骨에 對한 考察」, 『湖南考古學報』 10.
- 이준정, 2005, 「한반도 신석기 시대의 생계 양상에 대하여」, 『선사·고대의 요리』 특별전도록, 복천박물관.
- 李昌浩, 2004, 「中西部地域 靑銅器時代 貯藏施設의 研究」, 公州大學校 史學科 碩士學位論文.
- 李弘鍾, 1997, 「韓國 古代의 生業과 食生活」, 『韓國古代史研究』 12, 한국고대사학회.
- 張浩秀, 1997, 「1-2)-(1)후빙기의 자연환경」, 『한국사2 -구석기문화와 신석기문화』, 국사편찬위원회.
- 池健吉·安承模, 1983, 「韓半島 先史時代 出土 穀類와 農具」, 『韓國의 農耕文化』 京畿大學博物館.
- 河仁秀, 2006, 「新石器時代 骨角器의 樣相 -영남해안지역을 중심으로」, 『韓國新石器研究』 第11號.
- 韓相福 외, 1992, 『文化人類學概論』, 서울大學校出版部.
- 甲元眞之, 2004, 『日本の初期農耕文化と社會』, 同成社.
- 渡辺誠, 1996, 「繩文時代の經濟基盤」, 『考古學における日本歴史2 産業 I 狩獵·漁業·農業』, 雄山閣.
- 寺澤薰, 1987, 「稻作と植物食」, 『シンポジウム彌生人の四季』, 橿原考古學研究所附屬博物館 編.
- 佐藤宏之, 1998, 「陷し穴の土俗考古學」, 『繩文式生活構造 -土俗考古學からのアプローチ』, 同成社.